

##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의 매개효과\*

강민주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홍정순<sup>†</sup>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대우조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은 모두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 둘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가 매개할 때,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보다 유의하게 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할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적 자의식, 사회불안,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 본 논문은 강민주(2020)의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정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E-mail: day012@ajou.ac.kr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특징인 일반적인 인간 경험으로, 그 수준이 심각하여 기능적 손상까지 초래하는 경우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혹은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이라고 한다(Morrison & Heimberg, 2013). 임상적 진단 명칭인 사회공포증은 평생 유병률이 7~13%(Furmark, 2002), 신체적 또는 인지적 철수, 열등감, 지나친 자기몰입, 자기감시와 통제력의 감소와 같은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고(Schlenker & Leary, 1982), 상당수의 환자에서 이차적으로 약물남용과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한다(Liebowitz, Gorman, Fyer, & Klein, 1985, Turner, Beidel, Dancu, & Keys, 1986). 또한, 사회공포증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2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의 주관적 고통을 경험한다(Merikangas, Avenevoli, Acharyya, Zhang, & Angst, 2002).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이전에 비해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고, 발표, 그룹참여, 이성교제 등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Shepherd, 2006), 다른 연령대에 비해 5~6% 이상 높은 비율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Essau, Conradt, & Peterman, 1999). Strahan(2003)에 따르면, 대학생의 22%가 사회공포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대학생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 2,607명 중 75.4%(1,965명)가 잠재 위험군 수준 이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73.3%(1,912명)가 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교육협의회, 2018). 더욱이 이 시기의 사회불안은 그 손상이 광범위하고 성인기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학업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 남용, 주요 우울증, 일반화된 불안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Turner, Beidel, & Epstein,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이 일어나게 되는 기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불안과 관련한 많은 이론들은 인지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는데(Clark & Wells, 1995; Leary & Kowalski, 1995; Rapee & Heimberg, 1997), 사회불안의 생성 및 유지에 관한 인지적 접근 모형을 제시한 Clark와 Wells(1995), Rapee와 Heimberg(199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박기환, 2017). 특히, Rapee와 Heimberg(1997)는 '청중이 보는 자신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청중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 가능성과 그 결과 판단'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불안을 설명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청중을 위협으로 지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이때, 청중이 보는 자신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고, 그 표상과 청중이 기대하는 기준을 비교하게 된다. 문제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중이 보는 자신에 대한 정신적 표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자신이 청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청중이 보는 자신에 대한 정신적 표상은 사회불안의 핵심적 특징인 '자의식'과 그 개념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승아(2012)는 자의식에 대해 실제 남들이 지켜보는 것과 상관없이 타인이 자신을 지켜본다는 주관적 지각이며,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자의식(self-consciousness)은 행동, 외모 정서표현 등 자신의 공적 측면에 대한 자각인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과 자신의 내적 사고와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내면에 대한 자각인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으로 구분된다(Fenigstein, 1979). 사회불안과 자의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사적 자의식은 대인불안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Mor & Winquist, 2002),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불안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반면, 공적 자의식은 사회불안과 정적 관련이 있고(이강아, 홍혜영, 2013; 정미정, 정현희, 2002, Fenigstein et al., 1975; Hope & Heimberg, 1998; Smith, Ingram, & Roth, 1985),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정미정, 정현희, 2002, Buss, 1980; Fenigstein et al., al, 1975; Hope & Heimberg, 1998) 여러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공적 자의식 측정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Bruch & Heimberg, 1994;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이처럼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 과도하게 걱정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Rapee와 Heimberg(1997)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게 생각되고 높이 평가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외모나 행동이 타인의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과도하게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즉, 공적 자의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며(Monfries & Kafer, 1994;

Weeks & Howell, 201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쳐 사회불안을 유발한다(Carver & Scheier, 1982; Nichols, 1974)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근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심리적 속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가능성을 밝힌 Wallace와 Alden(1995, 1997)은 그들의 연구에서 사회공포증 집단과 비임상 집단을 성공 또는 실패로 조작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하고, 상호작용 전과 후에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자기 관점과 타인 관점에서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공포증 집단은 성공적인 상호작용 후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타인이 보는 관점의 평정은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자기 관점의 평정은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즉,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후에 자신에 대해 타인이 기대하는 바는 높아졌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자신의 능력은 그대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타인의 기대는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 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결국 높아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불안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Gilbert(2001)는 이것을 '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하고, 사회불안의 심리-진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일종의 경쟁불안으로 설명하였다. 즉,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 평가로 인해 지위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같듯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회적으로 얻은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Weeks, Heimberg와 Rodebaugh(2008)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독립된 요인이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변량을 제거한 후에도 사회불안에 대해 고유한 설명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Heimberg, Brozovich와 Rapee(2010)는 Rapee와 Heimberg(1997) 모형에서 언급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부정적, 긍정적 평가를 모두 고려한 평가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하며 사회불안의 설명 모형을 확장하였다. 국내에서는 한상연(2015), 정대수(2017)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독립적으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이강아와 홍혜영(2013)은 두 가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Hirsch, Clark와 Mathews(2006)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으로 편향된 해석과 고정 관념화된 자기표상의 두 가지 인지 과정을 결합하여 사회불안을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합된 인지편향 가설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기에(Carleton, 2012; Mahoney & McEvoy, 2012) 모호한 사회적 단서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보이는 반면, 긍정적인 해석은 결여된 경향을 보인다(Dryman & Heimberg, 2015). 이러한 해석 편향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자기표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Hirsch, Clark, Mathews, & Williams, 2003), 편향된 해석을 가진 개인은 또

다시 부정적인 자기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Hirsch et al., 2006). 즉, 부정적 자기표상이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편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높아진 불안은 다시 부정적 자기표상에 영향을 주어 사회불안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Weeks(2010)는 이러한 해석 편향이 사회적 상황 이후 사후처리에 관여하여 모호한 정보를 부정적으로 재해석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귀인과 타인귀인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자기귀인은 사회적 성과에 대해 자신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고, 타인귀인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타인의 몫으로 돌리거나 타인이 그저 자신에게 맞춰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다. Weeks와 Howell(2012)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사회불안과 고유하고,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가 사회불안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김지윤, 2015; 정대수, 2017; 한상연, 2015),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치 절하하는 해석 편향에 영향을 주어 사회불안의 유발에 기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곽세롬, 2016).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이 보는 자신의 공적 측면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 뿐 아니라 긍정적 평가도 두려워하게 되며,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결여된 해석편향을 보임으로써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연구(곽세롬, 2016; 성현주, 2011; 이강아, 홍혜영, 2013; 전영주, 박기환, 2011; Bruch, Hamer, & Heimberg, 1995; Hope & Heimberg, 1998; Monfries & Kafer, 1994)가 진행되어 왔으나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Heimberg, Brozovich와 Rapee(2010)는 Rapee와 Heimberg(1997)의 사회불안 인지모형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하면서 Hirsch 등(2006)이 제안한 결합된 인지편향 가설 또한 사회불안의 인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설로 지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Heimberg, Brozovich와 Rapee(2010)의 확장된 사회불안 인지모형에 대한 연구와 Hirsch 등(2006)의 결합된 인지편향에 관한 연구,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와 같은 해석편향이 사회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 Weeks(2010)의 연구에 근거하여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절하의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불안을 단일 유형으로 이해하기보다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의 특성별로 구분해야 한다(Leary & Kowalski, 1995; Turner, Beidel, & Townsley, 1992)는 주장에 근거하여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말이 지루하고 어리석게 보이거나, 자신이 잘 못된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Leary, 1983; Liebowitz, 1987). 수행 불안은 타

인이 자신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특정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상황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불안하거나 떨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Leary, 1983; Liebowitz, 1987).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수행 불안에 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김세은, 2005), 불안자의식 척도(김향숙, 2001)와 더 높은 관련이 있고, 자신이 사교적이지 않고, 신체적인 매력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선영, 2003). 수행 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비해 완벽주의(박선영, 2003; 최정훈, 이정윤, 1994), 특질 불안과 높은 자의식(박선영, 2003)과 더 높은 관련을 보고한다. Heimberg, Dodge, Hope, Kennedy, Zollo와 Becker(1990)의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집단과 수행 불안 집단을 대상으로 역할극 과제 수행 후 자기 평가와 관찰자 평가를 살펴보았는데, 수행 불안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자신의 수행에 대해 관찰자가 평가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은 불안의 근원과 인지, 정서, 심리 생리적 반응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Bögels, Alden, Beidel, Clark, Pine, Stein, & Voncken, 2010)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하위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공적 자의식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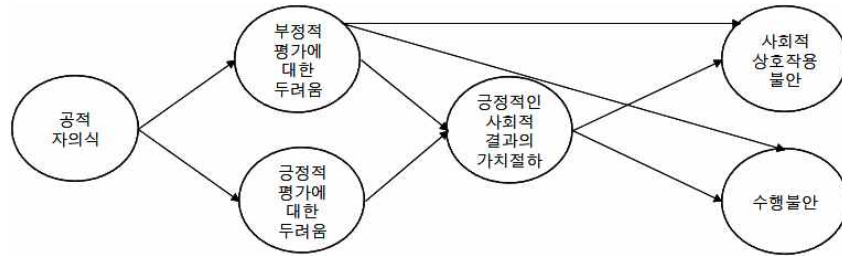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을 세우고 이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을 완전 매개하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을 부분 매개한다는 광새롬(2016)의 연구에 따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공적 자의식은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수행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대학교 대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설문 실시 전에 연구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문의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고지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총 323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자료 7부를 제외한 31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157명(49.7%), 여학생 159명(50.3%)이며, 평균 연령은 만 21.5세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89명(28.2%), 2학년 51명(16.1%), 3학년 97명(30.7%), 4학년 이상 79명(25.0%)이었다.

### 측정 도구

#### 공적 자의식 척도

공적 자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eningstein과 Scheier, Buss(1975)가 개발한 자의식 척도 중 공적 자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Likert형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적 자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김은정(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김은정(1993)의 연구에서 .76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였

고,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Leary(1983)의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로 개발한 것을 전체 척도점수와 상관이 .50 이상인 12개 문항을 뽑아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이다. Likert형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는 .90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Weeks, Heimberg와 Rodebaugh(200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두 개의 역채점 문항은 총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Likert형 10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서정, 이정애, 오강섭(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서정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일반인 집단에서 .85, 사회공포증 집단에서 .88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척도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Weeks(201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두 개의 역채점 문항은 총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

는다. Likert형 10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 절하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귀인과 타인귀인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한상연(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한상연(2015)의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해 .90, 자기귀인 .81, 타인귀인 .87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서 .86, 자기귀인 .71 타인귀인 .81로 나타났다.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Mattick와 Clarke(199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형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김향숙(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는 .92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사회공포증 척도

수행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Mattick와 Clarke(1998)가 개발한 사회 공포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형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는 .92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3.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고,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측정에 사용된 자료의 구성 개념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인 중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제외한 5개의 변인은 모두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통해 측정 변인을 구성하였다. 모형에 대한  $\chi^2$ 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유의확률이 .001보다 낮은 경우, 모형은 기각되어야 하지만  $\chi^2$  검증 방법은 영가설이 엄격하고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Browne & Cudeck, 1993), NFI, C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CFI, NFI, TLI 값은 .90이 넘으면 양호한 적합도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미만일 때 좋은 수준, .08미만일 때 양호한 수준, .10이하일 때 보통 수준, 그보다 크면 나쁜 수준으로 분류한다(Browne & Cudeck, 1993). 다음으로 연구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고, 각 경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AMOS는 다중매개모형의 매개효과 검증시 개별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기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간접효과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고, 5,000번의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신뢰구간 내에 0

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간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Lau와 Cheung(2010)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비교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Bootstrap을 통해 두 매개효과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며,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 과

### 기술통계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 왜도의 절댓값은 2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은 7미만으로 정규분포의 기준을 충족하였고(West, Finch, & Curran, 1995),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격 자의식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r=.24, p<.01$ ), 수행 불안( $r=.24, p<.01$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51, p<.01$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19, p<.01$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r=.16, p<.01$ )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48, p<.01$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72, p<.01$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r=.70, p<.01$ ), 수행 불안( $r=.64, p<.01$ )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43, p<.01$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r=.61, p<.01$ ), 수행 불안( $r=.52, p<.01$ )과



표 1. 연구변인 간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공격 자의식	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51**	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9**	.43**	1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16**	.48**	.72**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24**	.61**	.60**	.70**	1	
수행 불안	.24**	.52**	.65**	.64**	.70**	1
<i>M</i>	3.57	3.09	4.04	3.33	1.70	1.23
<i>SD</i>	.59	.63	1.43	1.34	.64	.72
왜도	-.37	.23	.29	.09	.11	.38
첨도	.10	.70	-.13	-.52	-.05	-.39

주.  $N=316$ . \*\* $p<.01$ .

정적 상관을 보이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r=.60, p<.01$ ), 수행 불안( $r=.65, p<.01$ )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CFI .97, NFI .95, TLI .96이며, RMSEA .07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측정 변인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와 요인부하량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공격 자의식 .75~.8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87~.92,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73~.88, 긍정적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82~.88,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 .86~.90, 수행 불안 .90~.96으로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가 Cohen(1988)이 제시한 최소 기준인 .30보다 크다. 따라서 17개의 측정변인으로 6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측정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328.132, df=111, CFI=.952, NFI=.930, TLI=.941, RMSEA=.079$ ).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검증 결과는 표 4, 그림 3과 같다. 변인 간의 직접 경로를 살펴본 결과, 공격 자의식에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chi^2$	<i>df</i>	CFI	NFI	TLI	RMSEA
246.894	104	.969	.947	.959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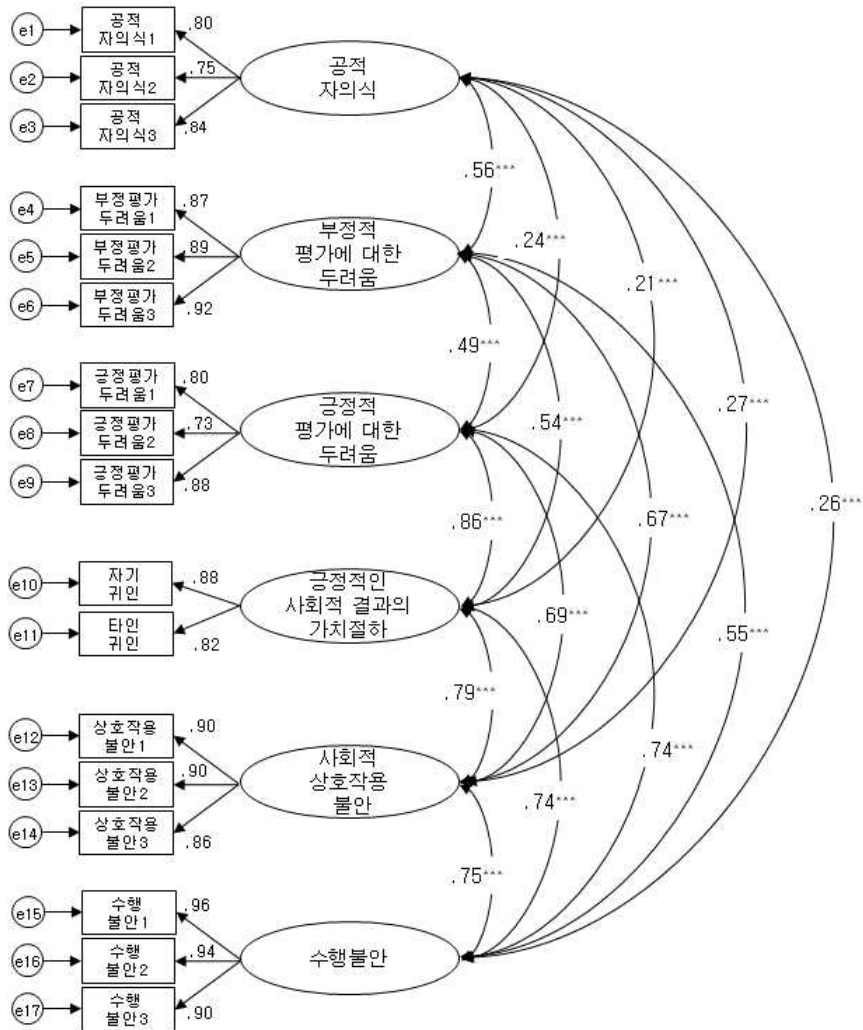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표 3.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chi^2$	df	CFI	NFI	TLI	RMSEA
328.132	111	.952	.930	.941	.079

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beta=.57, P<.001$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beta=.26, P<.001$ )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긍정적인 사

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beta=.21, P<.001$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 $\beta=.83, P<.001$ )로 가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beta$		
공적 자의식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5	.57	.07	9.33***
공적 자의식 →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5	.26	.16	4.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35	.21	.07	4.56***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64	.83	.05	12.65***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29	.33	.04	7.1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수행 불안	.18	.17	.05	3.61***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36	.67	.03	12.10***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 수행 불안	.46	.72	.04	12.88***

주.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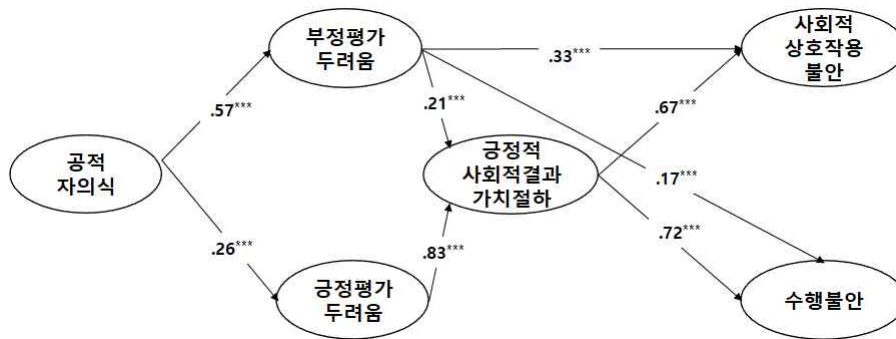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검증 결과

적 결과의 가치절하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beta=.67, P<.001$ ), 수행 불안( $\beta=.72, P<.001$ )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beta=.33, P<.001$ ), 수행 불안( $\beta=.17, P<.001$ )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평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인 사회

적 결과의 가치절하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각 경로 간 매개효과 분석결과

표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 (B)	S.E.	95% Bias CI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Upper
			[경로1] 공적 자의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08
[경로2] 공적 자의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수행 불안	.11	.04	.04	.19
[경로3] 공적 자의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15	.05	.06	.25
[경로4] 공적 자의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수행 불안	.19	.06	.08	.33
[경로5] 공적 자의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19	.05	.12	.29
[경로6] 공적 자의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행 불안	.12	.05	.03	.23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는 표 5와 같다.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를 거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매개효과( $B = .08$ ,  $CI = .04 \sim .14$ )와 수행 불안으로 가는 매개효과( $B = .11$ ,  $CI = .04 \sim .19$ )가 유의하였다. 또한, 공적 자의식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를 거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매개효과( $B = .15$ ,  $CI = .06 \sim .25$ )와 수행 불안으로 가는 매개효과( $B = .19$ ,  $CI = .08 \sim .33$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거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매개효과( $B = .19$ ,  $CI = .12 \sim .29$ )와 수행 불안으로 가는 매개효과( $B = .12$ ,  $CI = .03 \sim .23$ )가 유의하였다. 즉,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완전매개,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와 수행 불안으로 가는 경로의 차별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와 수행 불안으로 가는 경로 차이가 유의하였고( $B = -0.2$ ,  $CI = -.06 \sim -.01$ ), 공적 자의식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와 수행 불안으로 가는 경로 차이도 유의하였다( $B = -0.4$ ,  $CI = -.10 \sim -.01$ ).

표 6. 매개효과 차이 검증

경로	Estimate (B)	S.E.	95% Bias CI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Upper
경로 1과 경로 2의 차이	-.02**	.01	-.06	-.01
경로 3과 경로 4의 차이	-.04**	.02	-.10	-.01
경로 5와 경로 6의 차이	.07*	.04	.00	.16

주. \* $p < .05$ , \*\* $p < .01$ .

즉, 공적 자의식이 두 가지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를 매개하여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와 수행 불안으로 가는 경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B = .07$ ,  $CI = .00 \sim .16$ ). 즉,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거쳐 사회불안이 유발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들 간의 관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경로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과 정적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타인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이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불안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선주연, 신희천, 2013; 신현숙, 안의자, 강병은, 2016; Leary & Meadow, 1991; Miller, 1995),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강아, 홍혜영, 2013, Weeks & Howell, 2012), 사회불안(김환, 2015; 이강아, 홍혜영, 2013; 정미정, 정현희, 2002; Hope & Heimberg, 1998, Weeks & Howell, 2012)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과 정적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치 절하하는 경향이 높

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해 자신의 기여는 최소화하고, 타인의 몫으로 돌리는 인지적 해석 편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가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 상관성이 있고(곽세롬, 2016; 정대수, 2017; 한상연, 2015; Weeks & Howell, 2012), 사회불안과 정적으로 관련된다(곽세롬, 2016; 김지윤, 2015; 정대수, 2017; 한상연, 2015)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더불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해석 편향이 높고, 긍정적 해석 편향은 적게 한다는 인지적 편향에 대한 연구결과(이혜연, 2018; 전영주, 박기환, 2011; Alden & Wallace, 1995; Vassilopoulos, 2010; Vassilopoulos & Banerjee, 2008)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각각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수행 불안과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의 핵심 변인(Heimberg, Hope, Rapee, & Bruch, 1988)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동시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고도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한다(Fergus, Valentiner, McGrath, Stephenson, Gier, & Jencius, 2009; Weeks et al., 2008)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공적 자의식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공적 자의식이 타인의 부정적 평가 뿐 아니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두려움은

사회적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에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결과를 편향되게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어 사회불안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중이 보는 자신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청중으로부터의 평가 가능성과 그 결과 판단’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불안을 설명한 Heimberg, Brozovich와 Rapee(2010)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제안한 Weeks와 Howell(2012)의 양가적 공포모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곽세롬(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치 절하하는 인지적 편향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보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주로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eks(2012)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치 절하하는 해석편향이 두 가지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도,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의 하위요인 중 자기귀인 요인은 특히,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더욱 강한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즉,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48$ )보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 $r=.72$ )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Sluis와 Boschen(2014)은 사회불안과 행복한 표정에 대한 주의 회피의 관계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보다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더 강한 관련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회피하는 특성과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Dryman과 Heimberg(2015)는 사회불안과 부정적 해석 편향의 관계에서 두 가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자기보고를 통한 느린 처리 수준에서는 두 가지 평가에 대한 두려움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반응시간 측정을 통한 빠른 처리 수준에서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만이 부정적 해석 편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Dryman & Heimberg, 2015)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이 모호한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더욱 클 수 있으며, 이는 비교적 빠른 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불안의 발생 경로에서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 절하는 치료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Heimberg & Becker, 2002), 치료에서 무언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가치 절하하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와 수행 불안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순차 매개할 때,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 경로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할 때는 수행 불안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순차 매개 할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보다 수행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간 차별적 특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Schlenker와 Leary(1982)는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을 타인과 관련된 상호작용의 유무에 따라 유관적 상호작용 불안과 비유관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구분하였는데, 유관적 상호작용 불안은 데이트 불안처럼 타인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할 때 나타나는 불안이며, 비유관적 상호작용 불안은 발표 불안처럼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할 때 나타나는 불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전자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의미하며, 후자는 수행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상호작용 계획과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반면, 수행 불안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즉각적이지

않으므로, 타인의 행동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으며 계획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Kessler, Stein, & Berglund, 1998; Leary, 1983; Liebowitz, 1987; Schlenker & Leary, 1982; Turner et al., 1992). 즉, 이러한 결과는 상대방의 반응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은 수행 불안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관련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선영(2003)은 사회불안 유발상황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은 과잉 불안 염려였으며, 수행 불안에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신념은 과묵화와 무기력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박선영, 2003)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염려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을 지니게 되며, 타인의 반응에 유관적이지 않은 수행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개인 내면의 유능성과 효용성 영역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상대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타인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염려한다는 것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수행 불안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를 매개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수행 불안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 관찰자가 평가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와 관

련된 연구로는 수행 불안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수행에 대해 관찰자가 평가한 것보다 더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Beidel, Scharfstein, Wong, & Alfano, 2010; Heimberg et al., 1990)는 선행 연구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집단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오히려 통제 집단의 참가자보다 자신의 수행을 더 정확하게 평가한다(Alden & Wallace, 1995)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신희린(2012)의 연구에서는 수행 불안 집단 참가자들의 수행 수준이 통제 집단 참가자들만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집단은 자신의 수행 수준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는 반면, 수행 불안 집단은 자신의 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공적 자의식이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를 매개로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보다 수행 불안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지지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살펴본 한상연(201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보다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행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개인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박선영, 2003),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신희린, 2012; Beidel et al., 2010),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실제보다 자신의 수행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해 자신의 노력으로 귀인하기 보다 다른 사



람들이 관대하거나 혹은 그저 운이 좋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가설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등이 사회불안의 하위유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공격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를 포함하여 평가 자체를 두려워하고, 사회적 결과가 긍정적이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은 사람은 수행 불안이 높은 사람에 비해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수행 불안이 더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와 자신에 대한 효용성에 몰두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치 절하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개별적 영향력이 확인된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그 차별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에 대한 축적된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한 점,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가 사회불안 유발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점도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가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의 상담과 치료에 있어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불안의 증상 그 자체를 다루기보다

그 사람의 자의식적 특성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결과를 해석하는 인지적 해석 편향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사회적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고립된 증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상과 사회적 상황 후에 해석 편향이 결합되어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Hirsch et al., 2006), 이 반복되는 경로를 확인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만큼 긍정적 평가도 두려워하며,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긍정적인 모든 것에 대한 손상된 반응은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의 삶의 질을 낮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청중이 보는 자신의 정신적 표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불안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Morrison & Heimberg, 2013). 따라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상담실제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성공적인 사회적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긍정성이 결여된 인지적 편향이 사회불안의 유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의 상담에 있어서 해석 편향의 수정이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eimberg와 Becker(2002)는 실제 임상 장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치 절하하는 해석 편향의 수정이 사회불안장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심리적 증상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높은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사회적

안의 감소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mir & Taylor, 2012; Beard & Amir, 2008; Murphy, Hirsch, Mathews, Smith, & Clark, 2007).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이 단일한 유형이 아니라 사회불안을 느끼는 상황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 특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사회불안의 증상에 따라 치료적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이 상담에 왔을 때,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상담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가 일반화되기에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과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해석 편향과 관련하여 측정방식에 따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유은식, 손은정, 2019).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전, 후에 해석 편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시간적 관계 및 인과관계를 통해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회불안 유발 과정에서 해석 편향의 역할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새롬 (2016).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증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사건의 긍정결과 가치 절하와 부정결과 파국화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은 (2005). 발표불안집단과 사회불안 하위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1993). 우울증상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 변인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윤 (2015).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향유하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환 (2015). 사회불안과 공격 자의식, 초점주의 역기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5(3), 519-539.
- 박기환 (2017). 사회불안의 이해와 치료. 인간연구, 34(1), 7-35.
- 박서정, 이정애, 오강섭 (2010). 한국판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PES)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205-221.
-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선주연, 신희천 (2013). 자의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3183-3200.
- 성현주 (2011).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 효능감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안의자, 강병은 (2016). 여고생의 공격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기본심리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13(3), 498-519.
- 신혜린 (2012). 사회적 불안 상황을 중심으로 한 사회불안 하위 유형의 불안 반응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은식, 손은정 (2019). 사회불안과 해석 편향의 관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효과. *재활심리연구*, 26(3), 131-149.
- 이강아, 홍혜영 (2013).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71-2290.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이혜연 (2018).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와 사회불안의 관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이중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 박기환 (201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 편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1(2), 59-73.
- 정대수 (2017).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의 특성 비교: 긍정 및 부정 정서성, 긍정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해석 편향,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해석 편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정, 정현희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정승아 (2012). 사회불안과 자의식, 그 진단적 및 치료적 시사점. *상담학연구*, 13(1), 47-69.
- 최정훈, 이정운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21-47.
- 한상연 (2015).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와 사회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보도자료: 위기의 대학생, 정신건강 적신호. <http://www.kcue.or.kr/bbs/view.php?gb=news&page=3&idx=615&kind> 에서 검색.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den, L. E., & Wallace, S. T. (1995). Social phobia and social appraisal i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social interac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5), 497-505.
- Anderson, J., & Gerbing, D.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mir, N., & Taylor, C. T. (2012). Interpretation training in individuals with generalized social anxiety disorde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0(3), 497-511.
- Beard, C., & Amir, N. (2008). A multi-session interpretation modification program: Changes in interpretation and social anxiety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10), 1135-1141.
- Beidel, D. C., Scharfstein, L., Wong, N., &

- Alfano, C. A. (2010). Social skills and social phobia: An investigation of DSM-IV subtyp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992-1001.
- Bögels, S. M., Alden, L., Beidel, D. C., Clark, L. A., Pine, D. S., Stein, M. B., & Voncken, M. (2010). Social anxiety disorder: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DSM-V. *Depression and Anxiety, 27*(2), 168-18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2), 155-168.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1), 57-65.
- Bruch, M. A., Hamer, R. J., & Heimberg, R. G. (1995). Shynes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ddictive or interactive relation with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3*(1), 47-63.
- Buss, A. 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Freeman.
- Carver, C. S., & Scheier, M. F. (1982). Control theory: A useful conceptual framework for personality-social,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2*(1), 111-135.
- Carleton, R. N. (201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construct in the context of anxiety disord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Expert Review of Neurotherapeutics, 12*(8), 937-947.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41*(68), 69-93.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ryman, M. T., & Heimberg, R. G. (2015).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anxiety, fears of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bi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9*(5), 646-657.
-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 F.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9), 831-843.
- Fergus, T. A., Valentiner, D. P., McGrath, P. B., Stephenson, K., Gier, S., & Jencius, S. (2009).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8), 1177-1183.
-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75-86.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urmark, T. (2002). Social phobia: overview of community survey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5*(2), 84-93.

- Gilbert, P. (2001). Evolution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attraction, social competition, and social hierarchies. *Th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4(4), 723-751.
- Heimberg R. G., Dodge C. S., Hope D. A., Kennedy C. R., Zollo L. J., & Becker, R. E. (1990). Cognitive behavioral group treatment for social phobia: comparison with a credible placebo contro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1), 1-23.
- Heimberg, R. G., & Becker, R. E. (2002). *Treatment manuals for practitioners.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Heimberg, R. G., Brozovich, F. A., & Rapee, R. M. (2010). A cognitive behavioral model of social anxiety disorder: Update and extension. In S. G. Hofmann, & P. M. DiBartolo (Eds.), *Social Anxiety: Clinical, Developmental, and Social Perspectives* (2nd ed., pp. 395-422). Amsterdam; Boston: Elsevier.
- Heimberg, R. G., Hope, D. A., Rapee, R. M., & Bruch, M. A. (1988). The validity of the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with social phobic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5), 407-410.
- Hirsch, C. R., Clark, D. M., & Mathews, A. (2006). Imagery and interpretations in social phobia: support for the combined cognitive biases hypothe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3), 223-236.
- Hirsch, C. R., Clark, D. M., Mathews, A., & Williams, R. (2003). Self-images play a causal role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8), 901-921.
- Hope, D. A., & Heimberg, R. G. (1998).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4), 626-639.
- Kessler, R. C., Stein, M. B., & Berglund, P. (1998) Social phobia subtype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5), 613-619.
- Lau, R. S., & Cheung, G. W. (2010). Estimating and comparing specific mediation effects in complex latent variable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3(1), 3-16.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1), 66-75.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94-112).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ary, M. R., & Meadows, S. (1991). Predictors, elicitors, and concomitants of social blus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254-262.
- Liebowitz, M. R, Gorman, J. M., Fyer, A. J., & Klein, D. F. (1985). Social Phobia: Review of a neglected anxiety disorder. *Arch Gen Psychiatry* 42(7), 729-736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In: Klein DF (ed). *Modern Problems inarmacopsychiatry: Anxiety*, Vol. 22. Karger: Basel, NY. (pp. 141-173).

- Mahoney, A. E., & McEvoy, P. M. (2012). Changes in intolerance of uncertainty during cognitive behavior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3*(2), 849-854.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Merikangas, K. R., Avenevoli, S., Acharyya, S., Zhang, H., & Angst, J. (2002). The spectrum of social phobia in the zurich cohort study of young adults. *Biol Psychiatry, 51*(1), 81-91.
- Miller, R. S. (1995). On the nature of embarrassment: shyness, social evaluation and social skill. *Journal of personality, 63*(2), 315-339.
- Monfries, M. M., & Kafer, N. F. (1994).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Journal of Psychology, 128*(4), 447-454.
- Mor, N., & Winquist, J. (2002). Self-focused attention and negative affec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4), 638-662.
- Morrison, A. S., & Heimberg, R. G. (2013). Social anxiety and social anxie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1), 249-274.
- Murphy, R., Hirsch, C. R., Mathews, A., Smith, K., & Clark, D. M. (2007). Facilitating a benign interpretation bias in a high socially anxious popul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7), 1517-1529.
- Nichols, K. A. (1974). Severe social anxiety. *British Medical Journal of Psychology, 47*(4), 301-306.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Schneier, F. R., Johnson, J., Horning, C. D., Liebowitz, M. R., & Weis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epidemiological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4), 282-288.
- Shepherd, R. M. (2006). Volitional strategies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Quarterly, 9*, 10-2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luis, R. A., & Boschen, M. J. (2014). Fear of evaluation in social anxiety: Mediation of attentional bias to human face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5*(4), 475-483.
- Smith, T. W., Ingram, R. E., & Roth, D. L. (1985).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Self-evaluation, affect, and life stress. *Motivation and Emotion, 9*(4), 381-389.
- Strahan, E. Y. (2003).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skills on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2), 347-366.
- Tuner, S. M., Beidel, D. C., Dancu, C. V., & Keys, D. J. (1986).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and comparison to avoidant personality

-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4), 389-394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2), 326-331.
- Turner, S. M., Beidel, D. C., & Epstein, L. H. (1991). Vulnerability and risk for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5(2), 151-166.
- Vassilopoulos, S. P., & Banerjee, R. (2008). Interpretations and judgments regarding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scenarios in childhood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7), 870-876.
- Vassilopoulos, S. P. (2010).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the discounting of positive interpersonal event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8(5), 597-609.
- Wallace, S. T., & Alden, L. E. (1995). Social anxiety and standard setting following social success or fail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6), 613-631.
- Wallace, S. T., & Alden, L. E. (1997). Social phobia and positive social events: The price of suc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16-424.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 Weeks, J. W. (2010). The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A novel assessment of a long-recognized cognitive tendency in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8), 856-865.
- Weeks, J. W., Heimberg, R. G., & Rodebaugh, T. L. (2008).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Assessing a proposed cognitive compon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1), 44-55.
- Weeks, J. W., & Howell, A. N. (2012). The bivalent fear of evaluation model of social anxiety: Further integrating findings on fears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1(2), 83-9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원 고 접 수 일 : 2020. 09.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0. 30.

최종게재결정일 : 2020. 11. 13.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and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Min-Ju Kang**

Master's degree student

**Jung-Soon Hong**

Ajou University

Assistance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FNE), fear of positive evaluation(FPE) and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DPSO)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PSC) and social anxiety(SA) among college students. In this study, SA was divided into social interaction anxiety(SIA) and performance anxiety(PA). Participants included 316 undergraduates who completed a survey. There were three major results. First, PSC, SIA, PA, FNE, FPE and DPSO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Second, FNE, FPE and DPSO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C and SA. Third, when FNE, FPE and DPSO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C and SA, the effect on PA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effect on SIA, and in the path mediated by FNE, the effect on SIA was greater than the effect on PA. This paper discusse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